

영국

이야깃거리②

토니 미아노 목사 거리설교 사건

경찰: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여기서 증오 표현 범죄가 발생해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말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토니 목사: 혐오라니요? 저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경찰: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하던 토니 미아노 목사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 앞에서 침착하게 답변을 하였다. 점심시간에 맞춰 쇼핑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러 나왔던 토니 목사를 팔짱을 낀 채로 냉소적인 표정으로 짚어보는 한 여성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도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갔다. 바로 이 여성이 그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신고를 한 이유는 하나였다. 토니 목사의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설교와 동성애를 그 예로 든 것이 '불쾌' 했던 것이다.

- 경찰: 목사님께서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적인 설교를 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선 호모포비아^{homophobia}(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하셨습니까?
- 토니 목사: 아니요. 저는 동성애자를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결코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저를 동성애자 혐오자로 몰아 세우거나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2절 말씀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저의 설교는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었고, 동성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 경찰: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하여, 동성애 혐오 표현을 했고, 그로 인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설교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토니 목사: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분들이 제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성경 말씀을 설교할 자유가 있습니다.
- 경찰: 신고하신 여성분과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불쾌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한 소란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목사님을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 토니 목사: 네, 기꺼이 가지요. 저는 성경 말씀을 외친 잘못밖에 없으니까요.

경찰서로 끌려간 토니 목사는 약 6시간가량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지문과 DNA 채취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관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해야 했다. 질문이 끝나자 그의 변호사는 경찰이 그를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기소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음을 느낀 토니 목사는 계속 기도를 이어갔고, 그날 밤 자정 즈음에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왔다.

- 변호사: 토니 목사님, 기뻐하세요!
 경찰이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고 석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토니 목사: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토니 미야노 목사는 2013년 7월에 영국에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수개월 후에, 다시 스코틀랜드 Dundee 시에서 길거리 설교를 하다가 '치안방해 및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에서처럼 하루 만에 혐의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스코틀랜드 경찰도 결국엔 토니 목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토니 목사 사건 말고도 이와 유사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기독교 전도자인 고든 라모어 Gordon Lammour 씨가 스코틀랜드에 어셔주 길거리에서 어느 한10대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창세기를 소개하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그는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나이지리아 출신 올루올레 일레산미 Oluwole Ilesanmi 목사가 런던 길거리에서 코란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이슬람혐오^{Islamophobic} 표현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대중에게 '표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된다면, 이는 민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 논의, 토론에 대한 보장 없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